

1989 9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교회학교 초등부)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방법이 학자들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재래적 방법을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 7 장 :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사역이 진행됨

8 - 12 장 :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전개됨

13 - 18 장 :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됨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다른 나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단계에 꼭 매듭이 한번씩 지어지는 것을 발견한다. 1 - 7 장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가는 순간에 어려움이 생겼다(스데반의 순교). 또 12 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뛰어넘어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기 직전에 또 한번 어려움이 생겼다(헤롯의 박해로 야고보 순교). 그리고 8 장 부분에 가서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는 그 순간에 또 한번 고개를 넘어가는 사실(바울 사도가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됨)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핍박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 환란과 핍박이 없이는 교회 성장은 있을 수 없다.

기독교회는 언제든지 고난과 연결시켜야 한다.

9월의 기도제목

1.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2. 원로목사님의 해외여행중 건강을 위하여
3. 교회설립 36주년 기념행사(기념예배, 교구찬양대회, 선교웅변대회, 성경암송대회)를 위하여
4. 9월18일부터 개강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
5. 9월21일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을 위하여
6. 교역자들과 장로들의 사역을 위하여
7. 10월 1일부터 있을 전도대회를 위하여

※ 만나에 실린 메시지는 이종윤 목사님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12: 5)

세상은 전쟁터 땅위에 사는 사람들은 너나 할것없이 모두가 다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동지역에서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휴전선을 중심 해서 긴장이 감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세상과, 악마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만 사용하면 돈, 건강, 지식, 명예, 권세가 다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서너가지 힘이 나타나 있습니다.

헤롯의 힘 첫번째 나타난 힘은 헤롯의 힘입니다. 헤롯왕은 교회를 향하여 적대감을 갖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장래가 촉망이 되고 유능한 일꾼으로 알려진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선생님을 별다른 이유없이 잡아다가 목베어 죽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의 힘은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당대의 분봉왕으로 그 지역의 총책임자로 자기가 원하는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큰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힘을 성경은 사탄의 힘이라 합니다. 그 이유는 헤롯의 힘은 불의한 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힘이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왕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가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내어 놓으므로 인하여 백성들의 구경거리를 삼게 하므로 자신의 영광을 받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환호성을 받아보고 싶어 인기전술을 폈던 것입니다.

** 오늘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대적하는 후에들이 불의의 병기를 들고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흥기를 멋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헤롯은 칼을 쓰는 폭력을 사용했지만 오늘 이 세상에는 언어의 폭력, 돈의 폭력, 정신적인 억압, 정치적인 폭력, 종교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 등의 수많은 폭력들이 마치 헤롯왕의 칼날처럼 우리 앞에 번뜩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같은 사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안을 삼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기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정당하게 사용하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은혜도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충현교회 위에 강력한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토) 신앙의 힘

찬송 343 성경, 행12: 6-12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식사술에 매여 누워 자는데」(12: 6) 주님께 맡기는 힘 해롯의 힘에 뒤이어 나타난 힘은 베드로의 힘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해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 언제 죽임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날이 되면 유월절 명절이 끝나서 많은 군중들 앞에 끌려나와 돌에 맞아 죽을런지 십자가를 지고 죽을런지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같으면 이제는 복음이 좌절을 당했고 하나님의 일이 끝났고 자기의 삶도 시간을 다룰 뿐이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베드로도 가장 근심하고 가장 염려에 빠져야 할 그런 시간에 베드로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잘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사 성취 베드로는 생사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에 대한 아픔 따위는 믿음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힘으로는 못개칠 일이 없고 못건너갈 홍해가 없고 못이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해롯이 가졌던 사탄의 힘,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신앙화하여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말은 잘하지만 신앙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힘을 가질 때 우리는 만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 양심의 부패한 냄새나는 더러운 마음, 짓눌리는 죄악의 붓짐, 율법의 짐, 죽음의 공포의 짐,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드립시다. 경제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모든 고통으로 눈물을 흘려지 말고 주님께로 날마다 가지고 나아갑시다.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힘이 아닌 신앙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천천히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12: 12)

기도의 힘 신앙의 힘이 나타나서 실제로 적용된 부분이 교회의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힘들이 있습니다. 권력, 권세의 힘입니다. 금력, 돈의 힘입니다. 학력, 지식의 힘입니다. 경력, 경험의 힘입니다. 무력, 육신적인 어떤 도구의 힘입니다. 폭력, 야성작용의 힘입니다. 이러한 힘들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땅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힘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고 어둠을 빛으로 비추어주고 썩어가는 것을 소금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고 사회를 비취 줍니다.

가장 위대한 힘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힘이 위대해 보입니다만 기도의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권세자리에 있고 아버지가 부자이면 아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만 돌려 놓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초대 교회는 야고보 선생님이 죽고 이제 베드로사도도 죽으면 교회는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게 될 터이니 견딜수 없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12: 5). 기도의 힘은 과연 위력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므로 마침내 옥터가 흔들리고 베드로의 손을 묶은 쇠사슬이 풀리고 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열린 옥문을 지나 성도들이 모여 있는 요한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으니 기도가 이같은 승리를 가져왔고 기도가 이같은 기쁨을 가져왔고 기도가 이같은 능력을 나타내게 한 것입니다.

**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구할 수만 있다면 구한대로 받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움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구하기만 하면 기도의 힘으로 이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불두막에 소금도 넣어야 짭맛을 냅니다. 기도가 악세사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에야 위력을 발휘합니다.

기도 기도의 위력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한국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수군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12:19)

죄의 값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에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죄는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이 죄벌레가 우리 몸에 붙으면 털어내기도 어렵고 이 죄벌레가 한번 우리 몸에 찾아오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죄악의 습성입니다. 헤롯은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아주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인 죄입니다. 많은 죄 가운데서도 살인죄요, 살인죄 가운데서도 의인을 죽인 죄요 의인을 죽인 죄 가운데서도 특히 하나님의 종을 죽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도중의 사도로 알려진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발광을 할 정도로 좋아하고 깡패 족속들이 헤롯에게 박수를 보낼 때에 헤롯은 사기가 충천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살인을 계속했습니다.

절대영역 침범 헤롯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조상 아담이 제일 먼저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죄였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인간의 자리를 떠나서 교만의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저주를 받게 되는 비극을 인류앞에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영역을 침범하는 이 교만의 죄를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결국 패망을 가져오게 되므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 * 넘어지고 싶으면 교만하면 됩니다. 실패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대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을 엄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교만의 요소가 있으면 철저히 시급히 뽑아버려야 합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마음에 상처를 입혀 도려내는 아픔을 준 것도 간접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교만입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훈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뻔뻔한 위선자는 아닌지 살펴 봅시다. 교만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면서도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미혹함을 용납하시고 이 민족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고로」(12:23)

영광 찬탈 헤롯이 범한 또하나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배신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무시무시한 죄를 헤롯이 범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발앞에 무릎꿇고 엎드려 절하는 이들에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며 일으켰거늘 헤롯은 백성들이 그를 가리켜 “신의 소리”라고 찬사를 보낼 때에 사양하지 않고 영광을 독차지 했습니다. 은혜받은 사람이 은혜 베푸신 분에게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자리 이탈 헤롯은 인간 본연의 자리를 이탈한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헤롯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며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소중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는 죄, 불순종의 죄, 그것이 헤롯의 죄목입니다. 결국 헤롯은 이 죄값으로 충에 먹혀 죽었습니다. 벌레에게 씹혀서 죽어간 이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적신호의 싸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곳에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처에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빈번한데 우리는 생명 귀한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의학계에서 까지 실험관 아기를 만들어 내어 그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고 죽게도 하고 실험도구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찬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스스로 택해서 받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충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도 남을 돕는 일을 몸에 익히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수) 부흥하는 교회

찬송 523 성경, 행 12:24-25

「하나님의 말씀은 **홍왕하여 더하더라**」(12:24)

말씀 홍왕 헤롯에게 박해를 당하던 교회는 아주 전멸될 것 같았으나 오히려 부흥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듯이 사도가 갇히고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단합이 되고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홍왕하여** 교회의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상부 상조 교회가 부흥하는 요소는 부조의 일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구제를 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밥을 먹고 사니까 사는줄 알지만 이 세상의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하루에 500명 이상이 장님이 되고 다리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지대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샘물파기 운동을 벌여서 물이라고 수입하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한국 복음주의 협회가 이일을 결의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에도 92%가 하루에 세끼 밥을 먹지 못합니다. 개에게도 줄 것이 남아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보면 아예 만지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고기덩어리가 썩어 나옵니다. 양심하나 까딱없고 내가 번 돈인데 무슨 상관이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이 한모퉁이에 수없이 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일이 없다면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좋은 신자라고 소리를 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홍왕한** 교회가 되고 사랑의 구제 운동이 폭발되어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역사가 한없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기도 내게 주신 물질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늘 기억하고 불쌍한 형제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도 주옵소서. 교회 안에 굶주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다 주고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13: 1)
 재산 목록 교회에 재산 목록이 있다면 이상하겠지만 안디옥 교회에는 몇가지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 풍성히 있기에 안디옥 교회는 실력있는 교회였습니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어떻게 보면 형편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남겨 놓은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최초로 보내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훌륭한 인재들 안디옥 교회가 쌓아놓은 재산은 훌륭한 건물이나 시설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이란 유능한 인재들이 가득히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한명만 있어도 힘이 될 텐데 수다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여간 굉장한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구제와 봉사에 뛰어난 사람이요 원만하고 온유한 성품 때문에 교회에서 늘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며 화목의 제물이 되어 서로 상극을 이루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앉게 만드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흑인 시므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으로 대단한 존경과 호기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교사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함께 자랐으니 왕족입니다. 또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사울이 있습니다. 당대에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인물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있는 인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요 자산이 두둑한 교회요 자랑할만한 교회입니다.

** 우리 교회의 재산목록 제 1 호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처럼 영향력 있는 일꾼, 유능한 일꾼, 유명한 일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꾼이 다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일꾼인가 하고 유명한 사람 찾으려고 고개를 기웃거리지 말고 자신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격려해 주고 아끼며 키워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격려하고 밀어주고 협력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인재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된 것입니다.

기도 남이 일꾼이 되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천국일꾼 양성이 더욱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13:1)

연합과 일치 안디옥 교회의 또하나의 자산은 연합과 일치였습니다. 물과 모래와 시멘트가 각각 따로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같이 모아놓고 적당히 배합해 줄 때에 돌보다 굳고 튼튼한 콘크리트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역감정, 민족 장벽, 계급 장벽, 빈부귀천의 장애가 녹아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본토 출신도 섬사람도 한마음이 되었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뜻을 이루었고 귀족과 평민이 한 생각을 가졌으며 선지자와 교사가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화합이 있었고 일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회 개성과 직업과 능력과 모든 배경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학교는 같은 연령층에 비슷한 배경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통솔하고 지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통솔이 쉽지만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특성이요 실력을 갖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타주의는 금물이며 파벌주의도 버려야 되고 분열주의는 출입구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하며 독선주의는 쳐다보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파괴하는 요소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일치를 이유로 해서 배타적일 수 있고 다양을 구실로 해서 파벌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으나 옳지 못합니다. 상호보충병이 되지 아니하고서 혼자 설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을 배타해서는 안됩니다. 다양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 용어가 사실은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손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각지를 끼우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성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일치 합니다. 외형적인 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것들이 조화와 질서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성 속에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서 하나되는 일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13: 2)

뜨거운 열심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의 자산은 섬기는 일에 열심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학자인 바울, 귀족 출신 마나엔, 신사 바나바, 식견있는 명사 시므온과 루기오 이 모든 이들이 금식할 정도로(2절) 열심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대개 지성인들은 ‘지성’을 빙자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하고 열정적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금식까지 할 정도로 위대한 힘을 가진 신자들이었습니다.

말씀 충만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위에 세워진 교회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불붙게 일어나는 뜨거운 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가라사대」(13: 2).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열심있는 성도가 빠지기 쉬운 시험가운데 하나는 자기 일에 열심을 내면서 그것이 신앙인줄 알고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는 성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도가 영원히 드려야 할 기도제목이요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있는 교회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방자해 집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눈을 감으면 말씀이 떨어지고 눈을 뜨면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예절과들은 “모교회보다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또 실리과들은 “교회에 서 선교사들을 뽑아내면 일꾼이 없게되고 물질 자원이 손실을 입게 된다”고 각기 교회를 위하는 척하고 떠들어 대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였습니다.

※※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라 때문에 배고파본 경험에 있느냐고 주님 물으실 때 “예”라고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준을 잃고 감정과 기분으로 덤비는 광신적인 신자나 생명을 잃고 굳어져버린 냉랭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도 부흥회나 쫓아다니며 감정만을 돌구게 마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서게 하옵소서. 교회학교에도 말씀이 흥왕하여 금년내로 만명이상 출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4: 7)

사망의 급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데 사고사만 아니라 자연사도 많습니다. 1970 년대의 유엔의 통계를 보면 하루에 출생수가 약 250만인데 비해 사망수가 170만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1/4 밖에 안되니 하루에 57만명이 지옥으로 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로마제국이 파전한 구 브로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만큼 그에게는 겸손한 마음도 있었고 구도자의 심정까지 있었습니다.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섬에 선교사로도 착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마술사에게 현혹되어 영원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급증 또한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점차 급증되고 팽창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섭게 확장되는지 전세계 역사상 2차대전 후에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변한나라가 상당수임에 비하여 공산주의였다가 자본주의로 돌아온 나라는 한나라도 없습니다. 중공과 서구라파가 변한 것 같으나 그것은 자기국가 이익때문에 외형적으로 변한 것이지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슬렘국가도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차대전 직후에 모슬렘 국교 국가가 일곱나라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47개국이 모슬렘국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물주의, 쾌락주의등 반기독교적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 기독교적인 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내 이웃은 배고프고 고통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은 아닙니다.

기도 오늘도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과 아울러 쏠것을 공급하게 하옵소서. 충현의 세계선교회를 축복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하시고 훈련중인 모든 선교사 후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엘루마는..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4:8)

사람되게 하나님되게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영혼을 놓고 엘루마는 마귀의 제물로 삼으려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서로 다룹니다. 선교는 놀이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전쟁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되게 하고 사람대접을 받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인간이상으로 비약하는 자를 끌어 내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인간이하로 전락하는 사람을 끌어올려 인간의 참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인간은 신격화되어서도 안되고 동물화되어서도 안됩니다. 선교는 또한 하나님으로 하나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선교는 또 물질로 물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되게 해서는 안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우리를 부러먹게 해서도 안됩니다.

이해 타산 박수 엘루마가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 이유는 서기오 바울의 생명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굶거리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소욕을 채우려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구원하여 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함도 아니요 개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선교활동이 교회의 정치적 희생물이 되어서도 안되고 교파의 통계치수를 올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은 오직 영혼 구원의 순수성 때문입니다.

*** 박수 엘루마는 전도를 방해하다가 소경이 되었습니다. 선교방해로 영육간에 소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의 구브로섬을 향해 달려갈 자가 누구입니까. 구브로섬은 고층 아파트 지역일 수도, 무허가 판자촌일 수도, 소외된 자들의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때로는 저명인사일 수도, 무명인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저 수많은 사람에게로 누가 건졌으며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바울이 되며 바나바가 되겠습니까.

기도 '선교'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물질과 기도로 지원하든지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파송한 세계에 나가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사역에 힘을 공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14: 2)

성도의 도리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복음전도자로 사역을 시작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사람들을 위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 성전을 찾았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소름이 끼치고 생각만해도 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그곳에서 추방까지 당하는 참으로 창피한 일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동족이라도 악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주먹질하고 원수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전도자로서 자존심도 역겨움도 다 팽개치고 성도의 도리를 다한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이 박해를 하든 추방을 하든 그것은 유대인의 인사고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 주는 것으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제도 활용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과 회당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아는 복음전도자였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와 상관없이 없다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전도하는 일에 적당하게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복음전도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는 말이 험해도 성도로서의 책임과 도리는 다해야 합니다. 한낱중을 땅에 묻어놓았다가 잘한 것처럼 주인 앞에 그대로 내어 놓은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기도 환경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면서 책임을 외면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히려 책임이행에 활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서만수 선교사님 내외분과 윤태곤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14: 3)

은혜의 말씀 증거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3절). 은혜받은 사람이 전한다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증거자가 뛰어난 명언이나 놀라운 격언을 전해서도 아닙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힘입게도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기도 하므로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는 말씀이므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을 찾았지만 바울은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의 가는 길 성도의 가는 길에는 반드시 찬반이 따릅니다. 이 고니온성에도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었습니다. 성도의 행하는 일에 만백성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편에서 있느냐 진리 편에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 편에서 있다가 반대를 당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려움 당했다고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터의 여러 고지 중에 동부전선, 서부전선, 중부전선으로 밀고 닥치다가 어떤 전선에서는 개신가를 부르다가 어떤 어떤 전선에서는 후퇴를 합니다. 그렇다고 전체 전선이 패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때 조금 빼앗긴 땅 다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를 증대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00명 전도해서 100명이 다 믿으면 감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기도한 것 100프로 다 성취되면 감사가 오히려 삭감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는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적대자 속에서 한 사람의 찬성자를 얻을 때 그렇게 용기를 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 우리의 삶이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반대에 부딪쳐도 두려워 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유익한 기회, 결손과 감사와 용기를 복돋우는 기회로 삼고 승리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항상 지지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반대속에서 감사와 결손과 용기를 얻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독일의 육호기 선교사님과 애굽의 이준교 선교사님에게 소망을 안겨 주시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은 줄로 알고 성밖에 끌어 내치니라」 (14 : 19)

잘된 마무리 무슨 일이나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시작이 좋았어도 마무리가 부실하면 용두사미가 되고 시작은 어슬팠지만 마무리가 잘 되면 지난날의 흠은 덮여집니다. 사도바울은 본문의 1 차전도여행을 통해서 훌륭한 결말을 지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사수하였습니다, 앓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극진한 환대와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했지만 이를 적극 사양하자 이고니온지방의 깡패들이 죽을 만큼 두들겨 팼습니다. 신인체 했더라면 이러한 수모와 곤욕을 치르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보호와 존경과 찬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우리나라 비화가운데 하나가 녹두나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두나물은 하도 잘 쉬니까 변하기 쉬운 나물이라고 해서 숙주나물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배경은 단종때에 신숙주라고 하는 사람의 변절을 비꼬아서 녹두나물에다 붙인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신앙의 절개를 변절시켜 살아남는다 해도 결국은 욕된 삶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같이 되어 성밖에 내침을 당했으나 일어나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 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선 바울의 모습입니다. 죽다가 살았으니 더 이상할 일이 못된다고 포기하지도 않았고 휴양을 한 후에 하겠다고 지연하지도 않고 고통에 좌절한 흔적도 없이 상처난 몸, 피나는 몸, 지친 몸, 죽었다가 살아난 몸 이끌고 절름거리며 달려갔습니다.

****** 복음은 생명보다 귀한 것인줄 아는 자는 피를 흘리는 것도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환경과 처지에 빠진다 하여도 이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의 신앙을 사수하므로 위대한 결말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나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죽는 삶의 결말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 자기를 위한 영광의 자리에 앉기보다 주를 위한 고난의 자리에 앉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김재창 선교사님과 안석렬 선교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시라 파라과이 전 역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14:27)

아름다운 고발 바울은 선교여행의 마지막 결말을 아름답고 감동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므로 맺고 있습니다. 위대한 결말을 이루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앞에 정직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을 맡겨도 보고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자기에게 맡기신 분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사도는 성심성의껏 보고를 했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의 내용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정직한 보고 두사도는 성심성의껏 모든 일을 보고했을 뿐 아니라 정직하게 보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승리, 가정적인 승리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승리케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들이 좀더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을 시켜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삼일절, 광복절 나라의 경축일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민족이 살게 되었다는 연설을 하는 정치지도자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통일대업을 이룰 수 있으며 이 민족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번영이 백성들의 근면과 자주정신에 의존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민족의 장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가 그러했고 현재가 그러하고 미래가 그러할 것이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 *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 뿐 아니라 민족 사회와 이 시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를 위하여 내 주변을 위하여 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하되 이 민족의 영육간의 구원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다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이여, 항상 도와 주시고 아름다운 결말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여 주옵소서. 유재일 선교사님을 통하여 칠레 복음화를 이루시고 김주경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서신 가운데 진주와 같은 가장 소중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로마서는 유명한 책으로 알려진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렵기로 유명한 책이다.

이 로마서가 어렵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나 문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리의 심오함에 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비로운 진리들, 논리를 초월한 말씀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며 바울의 13서신 가운데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가르쳐 사도의 복음서(Apostle's Gospel)라 한다.

기록시기와 장소는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의 봄철에 약3개월 동안 고린도나 인근지방에 머물면서 기록했다. 바울의 회심후 25년의 일이다. 이때는 바울이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자리에 있었으므로 이 책의 내용이 어느책보다 심오한 것이다.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로마인이 돌아가서 세웠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주제는 롬 1 : 16-17로 많은 학자들이 본다.

내용은 ① 1 : 17 서론(인사말, 기도, 주제)

② 1 : 18-3 : 20 구원의 필요성(이방인, 도덕주의자들,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③ 3 : 21-11 : 36 구원의 제공(죄인에게, 성도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④ 12 : 1-15 : 13 구원의 결과

⑤ 15 : 14-16 : 25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1 : 1)

둘로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둘로스는 영어로는 씨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로 번역함이 좋습니다. 슬레이브는 노예입니다. 오늘 종이라고 할 때는 기업주 밑에 가서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특권이 전혀 없습니다. 노예는 생명마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것뿐입니다. 한번 노예의 신분에 떨어진 사람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예는 팔려다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자기의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주종의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포쉴 바울은 자신이 사도(아포쉴)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영향을 받고 교훈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보기는 했겠지만 영향을 받은 흔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고전 9 : 1-2, 고후 12 : 11-13, 갈1 : 1). 바울은 사도됨과 부르심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부르심은 영어로 콜링(calling)이라하는데 사명과는 다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애 전부를 이 한 말에 걸었습니다.

******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상관입니까, 권력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의 노예일 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 예수님 아닌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엘리야겔간 선교사님과 박행렬 선교사님을 붙드셔서 인도와 서사모아에 주의 복음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 : 2)

복음의 내용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연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우연과 기연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주권자라고 믿으면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관은 우연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연으로 봅니다. 바울이 지금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아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약만 옳다고 하고 볼트만은 신약만 옳다고 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재하신 아들, 영원 전에 이미 계셨던 그 아들이,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를 가진 그 아들이 역사 속에 성육신하신 사실을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되셨습니다. 이말은 잘못 이해하면 아들이 아니었는데 양자 삼으셨다는 말로 이해되는 것 같으나 그런 뜻이 아니라 선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육신과 성결의 영, 다윗의 혈통과 부활을 나란히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성을 설명합니다. 완전한 인간되심과 완전한 하나님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란 역사적 시작을 말하는 것이요 능력으로 인정되셨다는 말은 선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 3 세기와 4 세기때에 많은 교부들이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는 양자된 아들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이런 양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환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역지로 해석하고 잘못 풀다가는 멸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기초입니다.

기도 우리를 미혹케 하는 많은 교리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생명 되신 진리 예수님만 믿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이 민족이 복음으로 안정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1 : 5) 종보자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은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도에 순종케 하고(행 6 : 7) 둘째는 그리스도에 순종케 하고(고후 10 : 5), 셋째는 진리에 순종케 하려고(벧전 1 : 21)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절대 헌신하는 것은 순종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앙에는 의지작용과 지식작용, 감정의 작용이 있습니다. 의지작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용이 순종작용입니다. 억압에 의해서 한다면 순종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신앙에서 지식작용은 롬 10 : 10에 나타납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미신이요 맹신입니다. 신앙에는 동의를 가져오는 확신이 따라야 됩니다.

참된 헌신 진리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이 확신에 이릅니다. 확신에 이른 사람이 헌신합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헌신입니다. 헌신없는 선교는 하나님께 받으실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못하고 예배당 짓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헌신없이 헌금하면 돈만 잃습니다. 헌신이란 말은 한번 바쳤다가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바친 몸, 시간, 재물 다시 내놓으라고 못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헌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이론이 필요없고 절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입으로만 헌신하고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헌신한 자는 그의 뜻대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입니다. 마귀편으로 소속을 옮겨서는 안됩니다. 세상으로 소속을 옮겨서도 안됩니다. 세상에 소속될 때 성도로부터는 고립됩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 한발은 세상에 한발은 주님께 영거주출하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한 헌신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스스로 교회를 이탈하지 말게 하옵시고 유혹으로 주님을 떠나지도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1 : 8)

감사의 이유 사도 바울은 인사가 끝나자 곧 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자기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고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로마인 성도의 믿음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갖게 되면 감사가 끊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면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사람이 가진 감사의 조건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 감사 바울은 로마인들의 믿음을 인하여 내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my God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상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보지않고 인격적으로 본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입니다. 저멀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 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인격신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대답해 주시고 억울할 때 위로해 주시고 곤고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8 절은 그리스도의 중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없으니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 감사의 이유를 체크해 봅시다. 나의 주위의 상황 때문인지 형제의 믿음생활 때문인지 살펴 봅시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려울 때나 곤고할 때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기도 나를 바라볼 때는 감사의 조건이 많지 못하나 타인을 바라볼 때 감사의 조건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곤고할 때나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곧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1 : 11)

믿음의 교환 바울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기를 참으로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상의 무엇을 갖다 주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안위라는 말은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혼자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숯불 한 덩어리를 불 속에서 따로 끄집어 내어 놓으면 아무리 잘 타던 숯불도 꺼져 버리고 말지만 함께 모아 놓으면 꺼지던 불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사람, 타락한 사람, 잘못되어가는 사람을 피차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환입니다. 믿음의 열매 바울이 또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를 구경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매를 맺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늘 부채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빛진 자라 하였습니다. 빛을 진 사람은 빛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빛을 갚기 전에는 자기의 소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빛은 평생 갚아서 다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평생 빛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적과 문화배경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에 살았습니다.

**** 피차에 안위함을 얻지 못한다면 믿음의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낙심된 자 믿음에서 이탈된 자를 멀리하거나 구박하지는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빛진 자의 심정을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십니까. 거짓말한 죄, 도적질한 죄는 회개할 줄 알면서 전도하지 못한 죄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면서도 부끄러움이나 부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을 닮아야 됩니다. 전도할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갚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부채를 안고만 있사오니 이 부채를 갚을 용기도 주옵소서. 이 민족의 장래를 주께서 지키시고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1 : 15)

바울의 비전 바울은 빛진 자로서 높은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보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차원 높은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한 소원입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평양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차원 높은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복음전도자로 자기 발로 걸어난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 되어서 배에 실려서 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전도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이유는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고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는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믿음의 정도(칼빈), 믿음만(찰스 핫지), 믿는 모든 사람(잔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다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니 믿음을 떠나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구절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이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입니다. 갔드

****** 잠을 자다가 천정이 대들보가 무너질까봐 식은땀을 흘립니까. 길을 가다가 땅이 꺼질까봐 떨립니까. 음식에 청산가리가 섞여 있을까봐 입맛이 없습니까. 세상을 사는데도 믿음 없으면 이와같이 되는데 믿지 못하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 평양성이 복음으로 무너지는 날을 속히 허락하옵시고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영적각성이 일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불의에 대하여...나타나나니」(1 : 18)

불의 신자와 불신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구별이 안되는데 이 세상에서 눈을 최후로 감는 순간에 불신자는 불안에 떨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두려워 하는 것은 양심에 심판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현장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초자연적 간섭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의 자연법을 통해서 조용히 나타납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부도덕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진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을 감추어 놓은 사람을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소유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불의가 계속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진리를 불의하게 막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참은 참인데 힘으로 막으려는 사람입니다. 한강을 뚝으로 막으려면 그 뚝이 결국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경건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않은 자에게 나타납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지 못한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은 종교성을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은 없다는 말씨는 종교성은 있으나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말씨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도 경건치 못한 자입니다. 경건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불의는 인간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하고 사람을 대해서는 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불의한 것이 죄입니다.

*** * 부도덕한 삶이 있는지 돌아보고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이를 죄없다 아니하실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기 전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기 전에 돌이킵시다. 예배 드리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웃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기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하여 늘 경건과 의로움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24일에 있을 선교 웅변대회 연사들을 불드시고 선교의 열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1 : 19)

핑계할 수 없는 죄 19절 말씀은 변증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던 사람은 핑계할 수 있다는 말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논리로 통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 또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하는 자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창조의 능력과 보존의 능력과 심판의 능력입니다. 신성은 곧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이 신성, 본성은 자연법칙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굉장한 것 같고 컴퓨터가 굉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운행방법은 흉내도 못냅니다. 하늘에 달을 띄워 놓고 날리시고 지구를 띄워 날리시는데 간단하게 하십니다. 별을 운행하시는데 부딪힐 것 같으면서도 안부딪칩니다. 모든 자연법칙만 제대로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은 성경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을 양심적으로 연구하고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와 무궁무진하신 지혜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와 영광 그러므로 자연만물을 보고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겨야 하는데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감사도 해야 합니다.

※※ 범죄한 하와가 죄를 핑계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핑계만 합니다. 그러나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핑계하는 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되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기도 감사가 없는 교만해진 마음을 물같이 녹여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므로 이웃에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1 : 21)

어두움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을뿐 아니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기까지 하였 습니다. 미련이란 분별력이 없는것을 말합니다. 분별력이 없 는 사람은 어두워집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불 신입니다. 스스로 지혜있다고 하지만 인간 지식은 피조물계 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스스로 지 혜있다 하는 사람이 가장 위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 상 한계의식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내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을 날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있다고 하는 사 람은 우준하게 됩니다. 우준한 사람은 피조물을 창조자로 알 고 심판자로 알고 구원자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구약 성경에 280회 사용) 을 썩을 것, 풀먹는 소의 형상(시106 : 20) 으로 바꾸었습니다.

가견적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으로 자꾸 보기를 원하여 서 가견적인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 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겨도 안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가운데 계시는 하나 님을 섬겨야 됩니다. 1계명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신을 가지고 있 습니다. 무신론자까지도 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신입니 다.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23절은 1계명과 2계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것이 없 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 다. 형상으로 새겨진 것 뿐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우상도 많 습니다. 사상이나 주의주장, 철학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 니다. 자기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하 나님 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섬겨야할 참신이십니다.

기도 한국의 산간마다 세워진 우상을 타파하게 하시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소멸시켜 주옵소서. 교회의 건물이나 십자가 까지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1 : 24)

죄가 죄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바꾼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종교를 바로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죄의 씨이므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피조물을 섬기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자기가 해탈하나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 받은 때부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 세력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버린 자식은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욕되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음행에 버려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몸은 죄중에 빠진 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우상숭배자들과 음행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제국의 모든 신전에서는 공공연히 음행이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란 참과 진실성 두가지 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워 몇번씩 바뀌나, 하나님은 진실하시어 변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엡 1 : 6, 12, 사 43 : 21). 성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약 3 : 9) 그 아들 어린양 되신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계 5 : 13), 주의 말씀이 찬양을 받으시고(행 13 : 48)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롬 15 : 9}.

**** 죄의 세력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품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청산합니다.**

기도 찬송이 식어지지 않게 저희 마음과 입술을 지키시고 예수님의 품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찬양대원이 마음도 하나 믿음도 하나 찬송도 하나되게 하옵시고 많은 대원도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2 : 1)

자칭 의인 2 장에서도 도덕적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 모랄리스트, 도덕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교만이었습니다. 사람이 종교적으로 교만해졌을 때 생겨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계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슬렘을 신봉하는 아랍 사람들이 세계의 문제야로 등장한 것은 그들의 종교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자만심 때문입니다. 세계에 평화를 갖다 주고 선과 유익을 갖다 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라면 모슬렘을 신봉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계가 어지러움에 빠진다면 이것이 곧 종교적 자만심인 것입니다. 종교적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대개가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고 심판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회로 하여 도리어 죄를 쌓는 사람입니다(4, 5)

타인 정죄 남을 판단하는 것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이라고 할 때 단순히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내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죄를 아는 사람은 남을 판단할 용기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므로 해서 범하는 세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비판하다 보니 자신은 교만해집니다. 둘째로 남을 지꾸 물어 뜯으니까 악한 자가 됩니다. 셋째는 남의 죄만 살피고 다니니까 불쌍한 자가 됩니다. 남을 판단치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 남을 판단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치 말아야 할 또 한가지의 이유는 남을 판단하는 자는 정죄됨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 아집과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남을 판단 합니다.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봅시다. 두세 사람이 모여 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자리를 뜨십시오. 칭찬하다 보면 나중에는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의식중이나 무의식중에 남을 판단치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앞에 살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충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2 : 6)

행위 보응 하나님께서 각사람에게 행한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여기의 행함은 외형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고 내적인 것까지
포함시킵니다. 남을 속으려면 먼저 자신을 속여야 합니다. 행
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도가 심판을 받을 때는 그 믿음
의 열매를 보아 심판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엉겅퀴를, 엉겅퀴
가 포도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입니다. 선행까지도 내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영생과 분노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
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십니다. 참는 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것이니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선
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으로 고난을 참는 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
면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광은 성도가 내
세에 받을 화려한 축복이요 썩지아니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적인 것입니다. 당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세속주의의 일당을 이루고 인간끼리 그룹을 만듭니
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노와
분으로 심판을 받는데 노는 외형적 표현이고 분은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분은 노의 시초입니다.

*** 구역식구끼리 서로 이간되어 적은 당들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역이 깨어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교사끼리 서로
파당을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학교의 큰 병폐가 됩니다. 가족
끼리 조금 말다툼을 했다고 등을 돌려대고 하루를 넘깁니까.
이혼으로 이산으로 줄달음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화해하
십시오. 치정과 원한에 의한 살인은 분을 오래 품은 연고입
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기 소그룹에 소속하되 자기의 뜻을 따라 당을
짓지는 말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
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2 : 9)
환난과 곤고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의 결과가 또한 각
각 다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인간을 외모로 보
지 않고 본질 자체, 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습니
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령(Living Soul), 영적 존재입니
다. 고기덩어리가 인간이 아닙니다. 본질이 문제입니다. 이
인간 존재자체에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
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즉각 하시는 때도 있고 오래 참
다가 영원한 형벌로 집어던지는 때도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는 영생의 속성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영광을 얻게 되고 존귀와 평강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
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다윗이 위대
한 사람인데 모세는 한차례 불신 때문에 가나안에 못들어갔고
다윗은 피흘린 죄값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세
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없이 망하고 율법있고 범죄한 자는 율
법으로 심판을 받으니 율법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공정한 심
판아래 있습니다. 율법없이 범한 자는 양심의 법을 어긴 자입
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함께' '안다' 는 두가지 말이 복합된
말입니다. 양심은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아니나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
는 하나의 심리작용입니다. 양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
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 매를 맞고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합시다. 악을 행하는
데도 징계가 없다면 영원한 형벌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더러
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선한 양심중 나는 어느 것에 속
합니까. 우리의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임하지 않도록 선한 양
심을 가집시다.**

기도 우리의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율법을 지켜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평
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10월 1일에 있을 성경 암송대회에 전교인이 참여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2 : 17)

율법때문에 유대인의 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뿐만 아니라 교만죄를 범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날때부터 유대의 피를 받아 태어나는 유대인이 있고 본래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알고 자랑으로 알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 칭하는 그들이 율법을 빙자하여 두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의지한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하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우월감 이 두가지는 다 필요한 말이고 대단히 중요한 말이지만 사도 바울은 두가지를 죄목으로 정했습니다. 율법을 의지했다는 말은 율법으로 구원얻은 줄 알았다는 말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일등 원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 교만, 종교적 교만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우월감이 율법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무색케 합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했으니(갈 6 : 4) 자기에게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또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고전 1 : 31), 주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믿음이 교만으로 나타나면 믿음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퇴색해 버리고 맙니다. 신앙교만 들어간 사람은 충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교만은 없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율법을 행한 선행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합시다.

기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적 교만에 들어올 때면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아 채유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2 : 20)

착각 유대인들은 진리를 아는 자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공부를 가르칠 때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안다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겸손이 유익을 갖다 줍니다. 19, 20절은 행함이 없는 교육에 대한 신랄한 비판입니다. 한국에 기도가 많은 것이 걱정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는 많이 했는데 생활할 때는 기도한대로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한국교회 설교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말은 풍년이 들었는데 행동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설교를 들어도 자극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만 무성한 생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말씀대로 손이, 발이, 가슴이 움직여야 됩니다. 생각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유대인을 향하여 신랄한 공격을 가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کنینگ 전통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도적질 하지말라 가르치면서 자기는 도적질한다고 바울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도적질 중에 괴상한 도덕질이 있으니 지식 도적입니다. 모대학 교수가 “지금 대학은 시험을 치는게 아니라 کنینگ 테스트 한다”고 말하니까 모신학교 교수가 “일반대학이야 کنینگ 있는게 당연하지만 내일 모레 강도사 시험칠 신학생들도 졸업시험 کنینگ을 한다. 전통이다”고 말했습니다. 절도는 남이 모르게 도적질하는 것이요 강도는 남이 알게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게으른 것도 도적질 중의 하나입니다. 물질에 대해 청지기 노릇은 한줄 알면서 시간에 대해서는 청지기 노릇을 할줄 모릅니다. 시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서있는것 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편하고 누워있는 것은 더 편하지만 세상은 서서 뛰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 언행이 일치하지 못한 지도자 그는 곧 죽은 자입니다. 그 사람의 교훈은 죽은 교훈입니다. 죽은 사람의 비석도 큰 설교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행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교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은 결석하지 마십시오.

기도 얼마나 기도보다 한가지 행동이 중요한 줄 알게 하시고 누워 있기를 좋아하지 말고 서서 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신행이 일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만나 • 1989년 8월호 • 등록번호 / 제9 - 110호 (1977. 10. 21) • 발행인 / 이종운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전화 562 - 4181 - 3)